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은행사업 초과 집행

김영찬기자 | 승인 2021.12.16 17:40 | 10면

매입비축사업 36억원...농업경쟁력 소득안정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체의 금품, 청탁 및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박성수 지사장)는 농지은행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올해 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집행(69억원 집행, 계획대비 101%)했다.

공사에 따르면, 고령·질병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축사업으로 36억원을 집행해 의령지역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2030세대에게 우선 임대해 신규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과 농업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채과다 및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2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재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해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써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은 4억원 이상 집행하며 고령농업

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일조했다. 특히 농지연금사업은 내년부터 사업대상자 조건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기 때문에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박성수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차년도 농지은행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많이 확보해, 의령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김영찬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